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월 19일(일) 제1525호



사진은 2024 이주민 설 집회.

이주민과 함께하는 설날!

온누리M미션, '2025 이주민 설 집회' 개최 1월 25일~2월 3일 ... 국가별, 민족별 예배

온누리M미션이 이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설날을 보낸다. 온누리M미션이 개최하는 이주민 설 집회가 1월 25일(토)부터 2월 3일(월)까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주제로 막 오른다. 네팔, 몽골, 미얀마, 스라랑카, 아랍,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공동체가 각 지

역 M센터에서 국가별, 민족별 예배와 교제, 아웃리치 등을 한다.

군산M센터 1월 29~30일 강화도 및 서울 경복궁, 남양주M센터 캄보디아예배 1월 30일~2월 3일 캄보디아 아웃리치, 몽골예배 연합 1월 28~30일 파주 영산수련원, 서빙고 네팔예배 1

월 28일 군포 하나로 복지재단, 서빙고 아랍예배 1월 30일 아흐마드 형제 집, 안산M센터 네팔예배 1월 28~29일 대부도 펜션 수까사, 안산 미얀마예배 1월 28일 미얀마 셀터, 안산 스리랑카예배 1월 28일 롯데월드, 롯데타워, 안산 안디옥교회 1월 28일 대관령 양떼목장, 정동진 해변, 안산 인도네시아예배 1월 29~30일 경기도 가평, 안산 캄보디아예배 1월 25~28일 영종온누리교회 M하우스, 안산 태국예배 1월 28~30일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 안산 필리

핀예배 1월 28~29일 안산M센터에서 이주민 설 집회를 한다.

이주민 설 집회를 위한 후원도 받는다. 이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도들은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각 공동체 담당자 및 문의 번호는 QR코드를 참고하면 된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31-7460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차세대 패션집회 'Love your neighbor'

3차 1월 24~26일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2025년 차세대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패션(PASSION)(이하 패션집회)이 막 올랐다. 1차 1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2차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한동대학교 효암채플에서 'Love your neighbor'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리엔테이션, 저녁 집회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정민 교수(한동대학교)의 강의와 20여 개 분야의 선택 특강 등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신앙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빙고 파워웨이브 1, 2부, 양재 중등부, 도곡이 참가하는 3차 패션집회는 1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한동대학교 효암채플에서 열린다. 노히데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은 "패션집회에 참가한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주 예수 오심 기다리는 목회자!

2025 목회사관학교, 전임 183명, 파트 121명 참석

주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25 목회사관학교가 지난 1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마임비전빌리지(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용은길 28)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주제로 열렸다. 온누리교회 전임목회자 183명, 파트목회자 121명이 참석했다.

2025 목회사관학교에서는 개회예배, 소그룹 나눔, 캠퍼스 및 비전교회 소개, 사역 발표, 이재훈 위임목사 주제 강의, 미래 비전 토크쇼, 기도회, 폐회예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온누리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목사는 "축매적 리더십은 변화를 이끌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와 협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간다"면서 "다음세대를 준비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갈등을 넘어서 겸손과 포용의 축매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하늘 전도사(양재 차세대)는 "2025 목회사관학교에서 지난 40년 동안 성장한 온누리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교회 인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달리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더욱 낮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홍하영, 박지혜 기자

2025 예수제자학(JDS) 참가자 모집

2025 예수제자학(JDS)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수제자학(JDS)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평신도 제자훈련이다.

2025 예수제자학(JDS)에서는 2월 말부터 10월까지 서빙고 주간반, 저녁반, 양재 주간반, 저녁반, 수원 저녁반, 부천 주간반을 운영한다(일정 및 문의는 QR참고).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2월 9일까지 각 캠퍼스 본당 로비에 마련되는 안내데스크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입학신청서(교역자 확인 필수), 추천서(교역자, 교사, 직장 상사, 은사, 지인 등 추천자 직접 작성)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증명사진 2매와 함께 캠퍼스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70만 원(전도여행비 별도).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요한이 환상들을 통해 받은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어린양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메시지를 제외하면 <요한계시록>의 많은 환상이 이상한 종말론으로 혼란해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단지 성도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 주기 위해 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명확한 목적 아래 많은 환상을 통해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어린양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 따라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인가?
용을 따라 바벨론에서 살 것인가?

크게 두 진영의 대립이 계속 전개됩니다. 용의 진영(바벨론)과 어린 양의 진영(새 예루살렘)의 격돌과 전투, 전쟁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여자의 후손과 싸움이 계속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영에는 일곱 영, 여자, 일곱 교회, 충성된 증인들, 네 생물, 24장으로, 천사들 등 새 예루살렘을 위해 준비된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차 도래할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용의 진영, 사탄의 진영은 야수들(바다와 땅에서 올라온)이 나타납니다. 또 큰 음녀가 있고, 이세벨, 니골라당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해합니다. 이들의 주요 거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았던 시대의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고,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생명들을 죽이는 영역과 진

영을 ‘용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진영의 싸움은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어린 양을 따라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용을 따라 바벨론에서 살 것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어린 양을 미워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지만, 어린 양은 승리할 것이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
모든 교회는 계속 성숙해야 한다

용과 어린 양이 싸우면 당연히 용이 이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양이 이길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길 것입니다(계 17:14).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사도 요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밧모섬에 유배시켰습니다. 용의 진영이 어린 양의 진영에 속한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들을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들이 공유하고 회람했습니다. 에베소교회 성도들도 버거모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읽을 수 있었고, 다른 교회들도 또 다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겠지만, 이 지역이 당시 가장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서신을 보내심으로 모든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일곱 교회에 주신 편지들을 보면,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맞춤 진단을 하십니다. 각 편지를 보면 “내가 안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의 정확한 사정과 형편을 아셨습니다. 오른손에 일곱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임재가 각 교회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

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도전과 약속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합당한 제자들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 받지 않은 교회도 있었지만, 그들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았습니.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그분의 은혜 밖으로 쫓아내시지는 않습니다. 교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 주면서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고, 모든 교회는 계속 성숙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일곱 교회 중에서 첫 교회인 ‘에베소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첫째, 그들은 많은 수고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핍박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셋째,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시대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것을 잘 분별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공동체는 거짓을 분별하는 칭찬받을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교회에도 책망할 게 있었습니다(4절).

여러분, 어린 양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그 감격으로 그분을 사랑하던 첫사랑을 버리면서도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을 분별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첫사랑을 버린 이유는 사랑이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쉬운 일을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최선의 것인 사랑 없이도 우리는 덜 중요하고, 차선의 것들로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사역의 양이나 열심, 헌신보다 우리 안에 첫사랑이 여전히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채우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거짓을 분별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순수성(purity)을 강조하고 지키다 보면 통합(unity)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통합에만 방점을 두면 순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순수성과 통

합의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에베소교회는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 없는 수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열심과 헌신, 섬김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첫사랑은 마지막 사랑이 되어야하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5절). 회개란 처음 했던 일을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심각하게 말씀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실상은 바벨론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교회에게만 주신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7절).

‘이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도전에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생명나무’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일곱 교회마다 다른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에는 ‘생명나무 열매’라고 했는데, 서머나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했고, 버가모에는 ‘흰 돌’, 두아디라는 ‘셋별’, 사대는 ‘흰옷’, 빌라델비아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보좌에 함께 앉힌바 된다’고 했습니다. 다 함께 영생을 누리는 모습을 다양한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생명나무가 회복된 모습으로 강 좌우에 있어서 영원히 사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야말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세상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만이 진정 어린 양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교회에 주신 “어린 양을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직장

일과 영성, 일반은총을 덧대며

‘온누리세계관학교’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작은 바람이 있었다. 직장에서의 삶이 어려운데 기독교 세계관을 정확하게 확립하면 그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지혜를 얻을 거란 바람이었다.

초창기 온누리세계관학교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을 배웠다.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힘을 얻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겼던 당시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의 이야기 처음과 끝을 이해해야 하는 도전이 시작됐다. 놀라운 점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그분은 피조 세계에 대한 회복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다. 그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계셨다. 더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회복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육체마저 새로 받는다는 점이었다(빌 3:21).

그런데 고모의 죽음을 통해 육체가 썩어지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나에게서는 성경의 진리를 온 맘으로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아울러 세상을 향한 계획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정치, 사회, 교육, 예술, 의료 등)가 회복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계 21:5).

2013년 온누리세계관학교에서 기초반 교재

를 만들기 시작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으로 북클럽도 했다. 일과 세계관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더욱 집중했다. 하나님의 메가스토리에 어떻게 작은 나의 스토리(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일과 관계 등)를 연결할 것인지를 강조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발맞춰 세상 속에서 청지기로서 맡겨진 역할을 다하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이으면서 성도답게 세상을 살아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나의 무능함과 경영진의 욕심이 맞물리며 직장에서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멋지게 다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나처럼 능력의 부족을 깊이 느끼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일과 영성> 책을 다 소화하지 못한 채, 다음 책인 C.S.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북클럽이 이어졌다. C.S.루이스의 책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북클럽에서 얻은 지식으로 직장생활이 쉬워지는 특별한 힘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시각에서 삶의 방향을 어디로 맞춰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온누리세계관학교에서

는 ‘일반은총’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일반은총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칼뱅은 <로마서> 1장을 꼼꼼하게 짚어 나가면서 인간은 누구든 그리스도나 자신 가운데 어느 한쪽을 부정하며 살아간다고 했다.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인간은 없다. 설령 그릇된 선택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본성, 구원의 필요성 같은 성경적 흔적들은 완벽히 제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도록 은혜로 이를 억제하고 계신다. 칼뱅의 주장을 팀 켈러 목사는 현대의 표현으로 재구성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깊은 자리에 거룩한 스토티를 심어 두셨다. 하나님과 선을 인식하는 이런 부류의 지식을 ‘일차적 신념’이라고 부른다. 지식과 지성 문화적으로 체득하는 ‘이차적 신념’ 같은 요소들의 극렬한 저항을 받기는 하지만 누구나 어느 수준까지는 일차적 신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죄의 교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라 할지라도 참다운 세계관을 빚는 수준까지 선해질 수는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일반은총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세계관을 따라가면 당연히 이르러야 할 정

도까지 엉망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일반은총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심지어 부도덕하거나 힘든 사람들까지)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능과 기회를 받은 존재라는 시각을 줄 수 있다. 일반은총을 도입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진다. 세계관 학습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구속 범위에 포함할 수 있지만,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들을 경계하거나 피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전도할 가능성도 희박했을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피와 살을 가진 이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악의 세력을 대항한다(악은 비신자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내면에도 숨어있다). 이웃이 소유한 일반은총의 선한 요소들을 분별하고 꼬집어낸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함께 심어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박은미 성도
(서초A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마틴 루터 킹 박사와 자연법

2009년 척 콜슨, 로버트 조지, 티모시 조지는 삶과 결혼,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변호했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이 선언문은 ‘맨해튼 선언’이라고도 알려졌다. 이 선언문에는 “종교적 양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제시한 것보다 설득력 있게 변호한 글이란 없다”는 대범한 문장이 있다.

비록 최근에 킹 박사의 중대한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는 폭로가 있었지만, ‘법의 본질과 무엇이 불의한 법을 구성하는가?’, 그리고 ‘불의한 법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설명은 실전 신학에서 걸작이다. 1월 15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2000년 1월 처음 방송되었던 킹 박사와 그의 ‘버밍엄 감옥에서 온 편지’에 대해 척 콜슨은 이렇게 논평했다.

“정의로운 법은 도덕률이나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인간이 만든 법이다. 불의한 법은 도덕률과 맞지 않는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위대한 민권 운동에 도전장을 던진 것은 그의 기념비적인 ‘버밍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 담긴 바로 이 글을 통해서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 부도덕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기를 거

부했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용감한 사람이 태어났던 날을 마땅히 기념하고 있다. 그는 진실을 위해 두려워할 줄 모르는 투사였고, 우리 모두 그에게 빛을 지고 있다. 그가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온전히 시민권을 누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학교와 법원의 계단마다 사람들은 오늘도 그가 했던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문을 인용할 것이다. 그것은 명쾌하고 강력

력 있는 옹호자였을 것이다. 감옥에서 쓴 글에서 킹은 “정의의 강령은 인간의 법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오늘날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 우리 모두 몇 주 전 조지 W. 부시가 TV로 방영된 전국 토론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언급했을 때 발생한 논란을 기억한다.

그러나 킹은 “불의한 법은 법이 전혀 아니다”라는 성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에 근거해 자신의 주장을 쌓았다. 킹은 정의로운

지고 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은 비참한 결과, 즉 자치 민주주의를 실제로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의 위대한 민권 운동뿐만 아니라 법을 도덕적 기반으로 되돌리는 마틴 루터 킹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싶다. 많은 사람이 킹을 일종의 진보적인 선동가로 생각하지만, 법에 관한 한 그는 정의의 유산을 회복하기 위해 주저 없이 노력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어거스틴의 어깨 위에 섰던 위대한 보수주의자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말하는 용감한 한 사람이 우리 시대의 불의한 법에 대항해 하나님의 법을 적용했을 때 역사상 위대한 순간을 만들고, 차이를 만들어 내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이다. 그냥 학교를 쉬거나 쇼핑몰에 가는 날이 아니다. 아이들과 함께 킹의 편지를 읽어보기를 바란다. 그것은 아이들 평생에 가장 중요한 시민 교육이 될 것이다.

/ 존 스톤스트리스(척 콜슨기독교세계관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척 콜슨(前 닉슨 대통령 법률보좌관, 척 콜슨기독교세계관센터 설립자)
원문: breakpoint(20220116)

“하나님의 법을 적용했을 때 역사상 위대한 순간을 만들고, 차이를 만들어 내는 이야기다.”

한 고전이 되었다. 하지만 킹 박사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갑자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게’ 되었기에 오늘날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법의 진정한 도덕적 기반에 대해 그가 변론했던 사실이다.

킹은 법의 권위에 대한 초월적인 원천을 변호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법을 바라보는 보수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취한 것이다. 사실 그는 대법관 클라렌스 토마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시대에서 이 관점에 대한 가장 설득

력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 큰 문제다. 법은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것은 초월적이고 불변하며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가? 아니면 진보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법은 단순히 법원에서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법을 발견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법을 창조하는가?

킹 목사 시대 이후 미국 대법원은 위대한 민권 지도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

함께, 말씀 듣고, 읽는다 '온누리 공동체성경읽기'

유튜브, 서빙고 2부 새벽기도회, 공동체성경읽기 모임

새해에는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새해 다짐으로 운동도 좋고, 외국어 공부도 좋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며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 그런데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을 혼자 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동역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실천해야 수월하다. <온누리신문>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소개한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온누리 공동체성경읽기'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com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새벽기도회에서 공동체성경읽기를 하는 성도들.

온누리 공동체성경읽기(이하 공동체성경읽기)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새 힘을 얻는 신앙 훈련이다. 깊은 신앙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 공동체성경읽기에 참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유튜브 활용한 '365일 성경읽기'

첫째, 유튜브를 활용한 '365일 성경읽기'다. 공동체성경읽기는 하고 싶는데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나 공동체성경읽기 모임 참석이 어려운 성도와 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

는 방법이다. 매일 지정 유튜브 '365 성경읽기' 채널(www.youtube.com/@every365bible)에 업로드되는 '2025 신·구약 함께 읽기-우리말'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매일 15~20분 분량 신구약 1독(1회독 365일), 매일 30~40분 분량 신구약 2독(1회독 약 177일) 영상이 상영된다. 신구약 1독과 신구약 2독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진도를 선택하면 된다.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때는 영상 링크를 공유하는 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는 게 좋다.

공동체 총무나 순장, 정해진 사역자가 영상 링크를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면 전파가 쉽고 빠르다. 영상 시청을 한 성도들은 링크가 표시된 메시지에 공감 표시나 짧은 나눔을 하면서 지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면 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

둘째,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참석만 해도 공동체성경읽기

를 할 수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6시 30분 선교관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신구약 1독 진도에 따라 공동체성경읽기를 한 다음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회를 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onnuriservice)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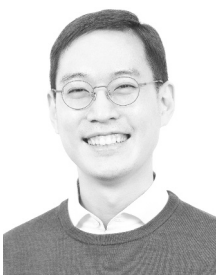
양일구 집사(이촌공동체)는 "성경 완독을 이미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에는 함께 도전하고 싶어서 공동체성경읽기에 참여했다"면서 "성경읽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더니 늘 큰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다"고 고백했다.

공동체성경읽기 모임

셋째, 공동체성경읽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다. 공동체성경읽기 모임은 3월과 9월 개강한다. 약 14주 동안 이어진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화평홀(신동아쇼핑 2층)에서 열린다.

공동체성경읽기 모임에서는 공동체성경읽기, 신앙서적읽기, 나눔의 시간이 진행된다. 성경 말씀 듣고 읽기 40분, 나눔 20분, 신앙 서적 듣고 읽기 30분, 나눔 30분을 하고,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교제를 한다. 성경과 신앙 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는 게 큰 유익이다. 혼자 성경 읽기가 어려운 성도, 말씀 그 자체의 신앙 훈련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추천한다.

사역칼럼

변대섭 목사
(공동체성경읽기 담당,
성북공동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요한복음> 1장 1절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성경 구절 중 하나다. 여기서 반복 사용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어로 '로고스'다. 말이나 진술, 이유 및 동기, 도(道) 혹은 근원이라는 의미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게시', '진리'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본문은 하나님과 말씀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준다. 말씀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태초부터 모든 만물보다 먼저 존재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영원하며 불변한다. 더 나아가 요한은 이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문장까지 선포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문장은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 의미가 매우 파격적으로 느껴질 만큼 강렬한 선언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선언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핵심이 말씀에 있다. 간혹 말씀, 기도, 예배, 전도 등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신앙생활 한 분야로 인식하는데, 그것은 신앙훈련을 받기 위해 커리큘럼 구성 차원에서 나뉘놓은 것일 뿐이다. 신앙생활은 모든 순간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총체적이면서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이 있다. 말씀이 없는 예배나 기도는 불안전하며, 그 이유나 목적, 방향성을 잃기 쉽다.

본문은 말씀을 성령과 구별해서 인식하는 것도 잘못되었음을 알려준다. 흔히 교회에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말씀파'와 기

도나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성령파'가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이 구별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건강한 신앙은 기록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온전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말씀을 공부하는 지식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과 신앙에 적용되어야 한다.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말씀으로 주어질 때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의 원리로 자리 잡았다. 개신교 예배의 중심에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설교가 있다.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QT도 이러한 맥락이다. 온누리교회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QT를 나누는 순예배, OBC(온누리바이블클럽), OGP(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 등 양육 과목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귀한 신앙문화들이다.

'공동체성경읽기'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자체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에 직접 다가가는 신앙훈련이다. 개인의 해석을 거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말씀하도록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는 이 유 중 하나가 그 의미를 바로 깨닫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훈련하면서 나 중심적인 성경 읽기나 해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말씀 듣기로 나아가는 과정이 공동체성경읽기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묶여서 같은 진도로 성경을 펼치게 된다. 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더욱 헌신하는 태도다. 단순히 서로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한 맥락에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분명한 영적 유익이 있다.

2025년에도 공동체성경읽기를 한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자리에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란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기를 소망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경제적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안 찾는다!

사회선교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모집



오종규 상담팀장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내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했다. 그 학생은 어머니의 회생이나 파산을 상담하고 싶다고 했다. 40kg도 안 돼 보일 정도로 마른 체구의 어머니는 한눈에 봐도 초라했다. 정리가 안 된 머리카락과 왜소한 체구는 그동안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고스란히 느껴지게 했다.

주춤주춤 사무실로 들어선 아들은 어머니의 개인 채무를 상담하고 싶다고 했다. 아들은 궁금한 게 많았는지 이것저것 준비해 온 질문을 쏟아냈다.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상담을 이어가다가 그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그 사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자신의 삶을 들려줬다. 남편은 결혼생활 중에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고, 정신이상으로 칼을 들고 아내인 어머니에게 살해 협박도 수 차례 했다고 한다. 지금은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본인도 남편 문제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채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힘들고 고된 어머니의 삶을 가까스로 붙잡는 것은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자살만은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은 어릴 적부터 명석했고, 영재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한다며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똑똑하고 귀한 아들을 세상에 버려두고 차마 혼자 떠날 수 없었다며 눈시울 붉혔다. 만약 아들이 없었다면 본인은 삶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자살했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살아갈 희망이자 용기, 힘이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나는 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이제 17살 남짓 되는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지나치게 어려운 가정환경이 오히려 아들을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궁금증도 올라왔다. 너무 어른스러워 보이는 아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부채 해결을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사무실까지 찾아온 아들이 대견했고, 그동안 힘들었을 그들의 삶의 무게를 생각하니 안타까움과 책임감이 몰려왔다. 한편 이 가정의 부채 문제가 계속 된다면 혹은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아마 어머니도, 그 똑똑하고 귀한 아들도 더는 버티기 힘든 극한 상황으로 몰렸을



사회선교 경제정의팀 재정세미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해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두고 어떻게 자살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채무 문제는 잘 해결해 드릴 테니까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것만 생각하세요.” 몇 달 후 채무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다. 감사의 표시로 음료를 들고 온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웃음을 여며야 할 만큼 찬 바람이 부는 외로운 순간이 온다고 해도 부디 남은 귀한 날을 생각하고, 어머님과 아들에게 있었던 좋았던 날들만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마음을 전했다.

사회선교가 필요한 이유

그렇다.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재정을 잘 관리하고, 수입조를 잘하는 것만으로 돈에 대한 사명을 다했다고 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시대는 지나친 물질주의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양극단에 몰릴 것이다.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과연 불평등의 문제와 경제적 빈곤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나는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채무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에스겔> 18장 5절, 7절~8절은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5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빛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 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7-8절)”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정의가 물 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고 쓰여 있다(암 5:24).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

는 제도(희년제도, 채무면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수님 역시 일찍부터 가난한 자의 삶과 형편에 관심을 가지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의미를 개인 구원에만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선교는 개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법, 규율과 기타 사회활동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선교의 대상이자 하나님 통치 대상으로 여긴다. 그렇기에 오늘날 사회선교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선교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이 먼저 그러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억압받는 자의 문제와 그들의 삶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셨다.

둘째, 복음을 개인적 구원에만 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다.

셋째,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교회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의 삶에 관심 갖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회문제를 외면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사회선교를 특정한 사회체제와 친화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선교가 특정한 정치체제와 결합하거나 특정한 사회체제와 친화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정한 체제와의 관계를 우선하거나 특정한 체제와 연관 지어서 고려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특정한 체제는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며, 흠결이 있을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기독교 진리와 구별된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선교를 통한 공의와 정의 등 기독교적인 이상적 사회가 온

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개인의 결단(구원)과 달리 사회 전체의 결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이 사회는 기독교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흠결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단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 영적 회복 돕는 '부채탈출119'

결국, 사회선교는 개인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병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이 사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은 지금까지 해왔던 구제나 금융사역만으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창설했다.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대안을 발견하고, 많은 채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성도와 그 가정을 돕고 있다. 그들의 부채를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경제적 회복과 영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돕고 있다.

경제정의팀에서 실시하는 '부채탈출119'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관계 맺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 회복을 돕는 사역이다. '부채탈출119'는 재정문제와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다. 성도들이 건강한 재정관과 계획을 수립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하도록 도와준다. '부채탈출119'는 2014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성도 약 600명을 상담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 앞으로 도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귀한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는다.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성경적 재정관리, 가계부채상담, 재정상담 등으로 이웃을 섬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많은 성도의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010-5550-3655

맛있는 말씀 해설

“...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 (창 49:5~7)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열두 아들 중에서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유언하는 내용이다. 보통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는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유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무엇 때문에 야곱은 두 아들에게 저주의 유언을 했을까?

〈창세기〉 34장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동생 디나가 밖에 놀러 갔다가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다. 그 이후 세겜은 야곱에게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한다. 세겜은 자기 족속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시므온과 레위는 히위 족속이 할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아파서 드러누운 남자들을 칼로 쳐서 죽인다. 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

〈민수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1장, 26장)가 나온다. 1장에는 출애굽 당시 시므온 지파의 수가 59,300명이다. 40년 뒤인 26장에서 가나

안 땅 입성을 앞두고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22,200명이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없어진다. 야곱의 유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나눠지고 흩어져 버린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야곱의 유언대로라면 시므온 지파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구별돼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한다.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거룩한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중심 지파가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건이 나온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자기 아들, 형제, 친구와 이웃을 칼로 쳐서 죽였고,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이 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앞에 나온 상황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에게 내린 야곱의 저주와 모세의 축복이 충돌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성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레위 지파가 야곱의 유언대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모세의 축복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하나님도 여김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때로는 화를 주시고 복도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주조차 복으로 바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저주받은 존재에서 축복받은 존재로 변화된 것이다. 저주를 삼켜서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어렵고 힘든 현실일수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사방에서 우겨 씹을 당하고, 환난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의 수고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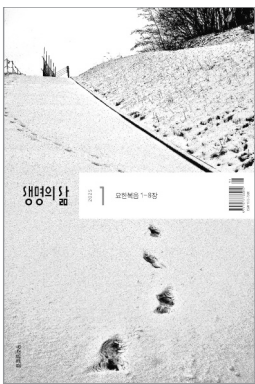


송석근 목사
(양지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1월 20일~1월 26일
〈요한복음〉 6:22~7:52



묵상포인트 1: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삶과 피는 인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과 직결되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중

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그에 담긴 영적 의미를 묵상하자.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무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자기에게로 올 수 없다고 하시니 많은 이가 예수님을 떠

난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묵상포인트 2: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기에 참되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그분의 출신 및 안식일 치유를 트집 잡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외모가 아닌 공의의 판단 기준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자.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형제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요구한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시면서도, 명절에 은밀히 성전으로 올라가신다. 명절 중간 즈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란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행하는 할례를 언급하시고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한 자신에게 분노하느냐고 하시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신다. 유대인들은 육적 조건을 내세워 예수님을 판단해 죽이려 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자 종교 지도자들은 아랫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 오게 한다. 예수님은 조금 더 있다가 자신을 보내신 분께로 가겠다고 하시며 죽음을 암시하시니,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묵상포인트 3: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값없이 누린다. 나를 향해 외치시는 예수님의 복된 초청을 묵상하자.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그냥 돌아오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을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나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자기만족을 위한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자. ▶관습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은 없는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반응하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충동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에 맞춰 움직이셨다. 메시에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행동하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다. 빈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모든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서초A공동체를 위하여!

‘서초A공동체’에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집사님, 암 투병 중인 권사님, 수술을 기다리는 권사님, 연로해서 아픈 성도님 등 육체적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 써온 서초A공동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 시절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몸이 불편해져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암과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항암 치료의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몸이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서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치료해 주시는 의료진들의 손끝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날개 치며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육체가 더욱 강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환자들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힘써 돌보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최태형 집사(서초A공동체)

* 바로 잡습니다

지난주 신문(1524호) ‘온누리가 함께하는 기도’ 내용 중에 국가가 태국이 아니라 튀르키예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멘토가 멘티에게

기도하라, 시도하라, 선도하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하는 일이 과연 내가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멘토링을 하다 보면 자신의 직업과 직장,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진 청년들을 많이 만난다. 무차별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도록 압박받는다. 변화에 떠밀리지 않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조언할 때 눈앞에 닥친 작은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큰 그림의 조언을 해주기 위한 나만의 방법은 ‘내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30년 전 나와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줄까?’를 상상하는 것이다. 30년 전 내가 첫 직장에서 작성했던 ‘자기사명서언서’를 권하고 싶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넘으며 축약된 세 가지 행동 가치 “기도하라, 시도하라, 선도하라”를 말해주고 싶다.

첫째, 기도하라. 기도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하심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방법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게으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기도와 QT를 습관화하고 싶었다. 그래서 첫 직장에서 몇 년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는 방법을 택했다. 직장생활 초기 만들어진 이 습관은 아침 QT 30년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해외 출장은 물론이고, 1박 2일 가족여행을 가더라도 <생명의 삶>만큼은

박사과정, 출판 등 다양한 시도로 얻은 경험을 통섭의 능력으로 인정받으면서 40대 중반부터 전문경영인으로 일했고, 작년 여름 은퇴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현실은 늘 우리의 시도를 막아선다. 하지만 시도란 원래 부족한 채로 하는 것이다. 하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게 된다. 그렇다고 닥치는 대로 막

를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

셋째, 선도하라. 하나님이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의 가치에 충실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 이왕이면 리더가 되어보라. 크고 작음과 관계가 없다. 책임지는 일을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큰 자산이다. 돈, 명예, 지위, 권력 등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미래를 과도하게 염려하다가 정작 현재를 허무하게 놓치게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선도가 되고, 결국 그 능력을 통해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김유진 멘토
(길공동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 능력을 통해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꼭 챙겨갔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려는 순간, 위기의 순간,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아들이 아빠에게 매달리듯 기도했다. 지혜로운 아내도 100일 동안 작정한 배우자 기도로 만났다.

둘째, 시도하라.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패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해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 나는 학부에서 광고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야간에 마케팅을 공부해서 성공적인 업무 전환을 이뤘다. 그 이후에는 직장생활과 더불어 겸임교수, 강연,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꾸준히 좋아하는 것,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쉽게 잘하는 것, 꿈꾸는 것이 시도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나는 취미로 20년 동안 해오던 달리기를 비즈니스 모델 삼아 국내 최초 ‘Runner를 위한 카페’를 오픈했다. 56세에 시작하는 제2의 인생 ‘덕업일치(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음)’다. 얼마 전에는 매장에 예배와 러닝을 함께하는 믿을 있는 청년 크루가 방문해서 의미가 남달랐다. 이곳에서 많은 러너와 함께 러닝 문화

정주호의 ‘홀리바디’

습관을 이기는 습관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몇 가지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한다. 그중 하나가 건강한 한 해를 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체중을 감량하는 것, 공부나 일로 허약해진 체력을 보강하는 것 등일 것이다.

운동이나 건강은 계획해 놓고도 실행하고 완성하기 어려운 복잡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료한 규칙적인 습관이다. 습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믿음의 습관이고, TV를 보는 것도 일상적인 습관이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마저 습관이 될 수 있다.

해외 자료를 인용해 보겠다. 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운동센터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운동이 재미없어서’, ‘운동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등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운동을 그만두었다. 그런데 그 수는 조사 인원의 반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반 이상의 사람들이 운동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답은 ‘그냥’이었다. 열심히 운동센터에 나가다가 어느 날 하루 빠지면 그다음 날은 그냥 나가가 귀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다음 다음날도 그냥 안 가게 되는 것이다.

그냥 안 가는 것은 우리의 나태한 습관을 말하는 것이다. 게으르고, 부정적인 습관은 굳이



“경건한 믿음의 습관과 건강한 습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 · 혼 · 육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키자!”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쉽게 들어온다. 반대로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들은 항상 의지를 다지고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공부, 학업, 일, 신앙생활 등은 항상 스스로 싸워서 승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같은 관점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혼까지 강건해지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의지가 필요한 모든 일은 동기와 이유,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습관을 들이고,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질 때 그냥 하기 싫던 일이 하고 싶어지고, 하기 싫던 교회에 나가고 싶어지고, 하기 싫던 운동도 건강을 위해 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2025년 새해부터 모두가 ‘작심삼일’을 생활 화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3일 만이라도 간단한 체조와 걷기를 하루 10분 만이라도 해보기를 권면한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새로

운 각오와 마음으로 작심삼일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3일마다 작심삼일을 결심하면, 1년에 122번의 작심삼일을 하게 되고, 어느새 건강한 체력과 체격을 갖게 될 수 있다.

혹 어떤 분은 ‘크리스천이 영과 혼이 아닌 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나 성령님을 나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며, 내 ‘몸’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생각하고, 건강하게 지킬 때 영혼을 담는 성전인 우리 몸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존재는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다.

오늘부터는 이전의 나태한 습관을 이기는 경건한 믿음의 습관과 건강한 습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육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키기를 건강 전도사 정주호가 응원하며 기도한다.



정주호 대표
(스타트레인, 재활과
학박사, 유튜브)

대학청년부 리더십 콘퍼런스 종료

청년부 리더십 875명, 대학부 리더십 515명 참석



사진은 2025 청년부 리더십 콘퍼런스.

2025 대학청년부 리더십 콘퍼런스가 막을 내렸다. 청년부는 1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소망수양관, 대학부는 1월 10일(금)에서 12일(일)까지 영산수련원에서 리더십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청년부 리더십 875명, 대학부 리더십 515명이 참석했다.

올해 청년부 리더십 콘퍼런스 주

제는 '킹덤 파이오니어(Kingdom Pioneer)'였다. 주제 강의, 홀리스타 새벽예배, QT, 집회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 '하나님 나라', 김승수 목사 '성령', 최영환 대표 '비전', 최성민 목사 '교회', 최대홍 목사 '선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대학부 리더십 콘퍼런스는 '왕의

귀환(The return of the King)'을 주제로 열렸다. 주제강의, 아침 묵상,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했다. 이재훈 위임목사 '비전', 박종길 목사 '부르심', 이정선 사모 '정체성', 최성민 목사 '선교', 이서진 목사 '청년', 천태석 목사 '제자도'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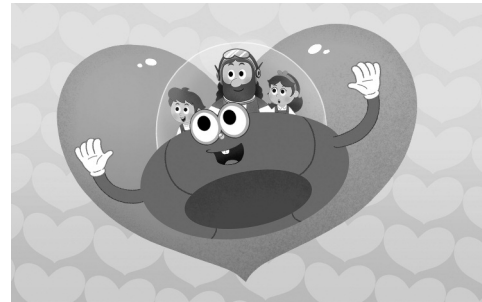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신규 에피소드 '심장 어드벤처'

기독교 OTT 풍당 '우리 몸으로, 풍당!'

CGN이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우리 몸으로, 풍당!' 신규 에피소드 '심장 어드벤처'편을 지난 15일(수) 공개했다. 기독교 OTT '풍당'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우리 몸으로, 풍당!' 신규 에피소드 '심장 어드벤처'편에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심장에 대한 궁금증에 답하고, 심장의 작동원리와 구조, 역할 등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쌍둥이 남매 찬이와 송이가 심장을 탐험하며 과학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 섭리를 발견한다.



'우리 몸으로, 풍당!'은 어린이를 위한 인체 탐험 애니메이션이다. 인체 과학을 애니메이션으로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우리 몸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소화기관', '남자와 여자', '혈관' 등을 주제로 신체 기관들을 살펴봤다.

/ 홍하영 기자

부천 한사랑공동체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1월 19일 오후 2시 부천온누리교회 꿈아이홀

부천 한사랑공동체(탈북민 공동체) 창립 12주년 감사예배를 1월 19일(일) 오후 2시 부천온누리교회 꿈아이홀(3층)에서 드린다. 한사랑공동체 소속 탈북민과 목회자, 봉사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예배에서는 임학실 성도 대표기도, 김혜경 목사 설교, 케이크 커팅식, 12년 출석 성도 시상식 등을 할 예정이다.

김혜경 목사(부천 한사랑공동체

담당)는 "부천 한사랑공동체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며, 통일시대를 위한 선교지원을 세우는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면서 "탈북민들이 동역자로 세워지고, 그들 스스로 탈북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리더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일터에서 성공하려면?

일하세 아카데미 22기 참가자 모집

일하세 아카데미 2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5주 동안 '일터에서 성공하기'를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앞 신동아쇼핑센터 311호에서 진행된다. 일하세 아카데미 22기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이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원.

일하세 아카데미는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발

견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일터신앙',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그리스도인의 성공관', '일터 내 인간관계', '리더의 역할', '조직문화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고수', '정직한 일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일과 신앙 균형 잡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주제별 그룹 활동과 사례공유 등도 한다.

문의: 010-6321-9522



온누리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1월 31일까지 서류 접수

온누리교회 상담센터(서빙고, 양재)에서 오는 1월 31일(금)까지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상담센터 양식 참조),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 졸업증명서, 임상 경력증명서(면접 상담 100시간 이상),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이다.

비용은 한 학기당 50만 원, 총 2학기 진행된다. 매주 슈퍼비전과 학기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한다. 합격 여부는 개별 연락한다.

문의: 서빙고(02-793-2997)

양재(02-570-753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새사람사역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교도소 사역에 헌신하고, 주중 사역이 가능한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부문은 일대일제자양육(양육 3회 이상의 양육자), 문서전도, 중보기도, 야기, 예배 찬양 등이다.

새사람사역팀은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큐티(QT)와 일대일제자양육, 집중인성교육 등을 하고 있다. 문의: 010-3242-8742

/ 박지혜 기자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 제목 원고를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 주고, 한 주 동안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 원고를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NGO 더멋진세상, 모로코 모바일 클리닉 사업

현지인 1천여 명 건강검진 실시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해 7월 모로코에서 시작한 '1차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한 모바일 클리닉(이동 진료) 사업' (이하 모바일 클리닉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까지 현지인 1천여 명에게 건강검진을 해줬다.

모바일 클리닉 사업에서는 지난해 지진피해를 겪은 모로코 마라케시 지역을 포함해 지방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혈압과 당뇨, 빈혈과 시력

검사 등을 하고 있다.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병원과 의료협회와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 인식개선 교육을 모바일 클리닉 사업과 병행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 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1월 31일까지 전화 접수, 2월 1일 오디션

온누리장로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65세 미만 온누리교회 장로가 대상이다. 합창단이나 성가대 경험 있거나 성악 전공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온누리장로합창단 단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는 1월 31일(금)까지 전화(010-5264-1191)로 접수하면 된다. 오디션은 2월 1일(토) 오전 11시 서빙고온누리

교회 비전홀에서 한다. 자유곡 한곡을 준비해오면 된다.

온누리장로합창단은 2012년 창단했다.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Acts29의 비전을 써내려가는 게 출범 목적이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러브소나타, 농어촌교회 방문 공연 등을 하고 있다.

문의: 010-5264-1191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안산M센터 봉사자 간증



/ 이익식 팀장(안산M센터 베트남예배)

아주 특별한 결혼식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12년 동안 근로자로 지내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투안 형제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안산M센터 베트남 공동체를 섬기고 후원하는 봉사자 6명이 뜻을 모아 함께하는 여정이었다. 권사님 한 분은 비자 문제로 참석하지 못해 아쉽게도 5명이 출발했다. 투안 형제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 아내를 잃는 비극을 겪었다. 어린 아이를 남기고 떠난 아내 소식이 전해졌고, 교회는 그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었다. 투안 형제는 베트남으로 돌아가 믿음의 새 배필을 만났다. 그의 결혼식을 한마음으로 축하하려고 베트남에 갔다. 하노이에 도착해 현지 목사님 안내로 결혼식이 열리는 빈 시티로 향했다. 오토바이 행렬에 막히기도 했고, 열악한 환경의 호텔에 머물렀지만 누구하나 불평 없이 단기 선교의 마음으로 임했다. 투안 형제의 결혼식은 이 지역 최초의 기독교식 예식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지역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했다. 공안의 방해 우려도 있었지만, 은혜로 결혼식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찬양과 기도, 축가와 감사장 전달까지 모든 순서에 은혜가 가득했다. 결혼식 이후에는 빈 시티에 있는 가정교회 세 곳을 방문했다. 찻먹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복음이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려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교회는 한국에서 복음을 접한 삼형제가 목회자가 되어 세운 곳이었다. 사모님 한 분이 한국에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부부는 10년째 매주 일요일 1부 예배를 드리고 안산M센터로 향한다. 그곳에는 러시아, 중국, 몽골,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에도 기도하며 운전대를 잡는다. “저들이 한국에 돈을 벌러 오지만 돈보다 귀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서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번 베트남 방문은 매주 드리던 기도의 응답이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투안 형제의 가족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방문을 감사하며 환대를 베풀었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웃과 지역에 복음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 온비아(온누리 BEE 아카데미) 수료 간증



/ 조병훈 성도(스페인어공동체)

인도하심과 이끄심

처음 온비아(온누리 BEE 아카데미) 과정을 알았을 때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차원에서 배워두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온비아 ‘갈로그(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삶)’ 과정은 많은 생각과 고민,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 바울의 서신서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배우면서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과정에서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달은 바가 삶으로 실천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와 직면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등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깊이 고민했다. 온비아 과정은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고민만 하던 과거와 다르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기회였다. 온비아 과정이 끝나도 그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부르셔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부딪히고 또 시도하고 변화할 것이다. 그래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작은 문제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어떻게 다루고, 기도하고, 대처해야할 지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익혔다. 문득 20년 전 우연히 BEE를 알았던 시절 이 과정에 참가했었다면 어땠을까 싶었다. 물론 그 20년도 분명 헛되이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리라 믿는다. 20년 만에 신청한 온비아 과정은 더욱 뜻깊고 은혜로웠다. 분명 20년 전과 지금 내 모습이 매우 다르고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고민하고 힘들었던 문제들이나 관점들을 이번 과정을 통해 잘 다듬고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다. 온비아 과정을 수료한다고 사람이 확 바뀌어서 엄청난 대격변을 이룬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 단계 혹은 한 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며 또다시 한걸음 한 걸음 나아가갈 것이다.

■ 영종온누리교회 네팔 아웃리치 후기



/ 조준오 성도(영종온누리교회)

사명이자 특권 그리고 은혜

영종온누리교회는 선물로 받은 교회다. 한 독실한 기독교인 사업가의 헌신으로 예배당을 선물 받은 것을 모든 성도가 기억하고 있다. 영종온누리교회가 지난해 창립 1주년을 맞아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네팔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다. 한 권사님의 헌금이 종잣돈이 되었다. 그렇게 영종온누리교회가 네팔 아웃리치를 갔다. 네팔 현지교회 헌당예배를 드리고, 주변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처음 방문한 곳은 바그마라교회였다. 영종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헌당한 교회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한 시간을 간 다음, 호랑이가 나오는 정글을 지나 다시 3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다. 버스에서 내렸더니 노란 유채꽃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염소들이 쉬고 있는 시골길이 나왔다. 그 길을 따라 한참을 갔더니 바그마라교회 성도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화려한 전통의상을 입고 직접 만든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우리를 환대했다. 도육한 목사님의 설교와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모두 함께 복음을 듣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시 3시간을 달려 두 번째 방문지 꼬혈뽈교회로 향했다. 팀원들 모두 피곤하고 지쳤지

만, 예배 가운데 회복하고 어느 때보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했다. 특히 이 교회는 아웃리치에 함께한 조경근 선교사님이 개척했다. 6년 만에 방문하는 거라며 “고향집에 온 것 같다”며 감격하셨다. 다음날 바랏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또카임 마누엘교회를 방문했다. 예배당이 없어서 선교사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뜨겁게 기도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나 물질보다 예배와 찬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원하셨다. 영종온누리교회 네팔 아웃리치팀은 ‘순화예배단’이 된 듯 발걸음이 멈추는 교회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를 먼저 알고 믿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특권이자 은혜임을 잊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복음 전하기를 쉬지 말아야한다.

■ 와이미션 수료 간증



/ 고원경 성도(강남B공동체)

와이미션과 네 가지 결심

온누리교회는 선교가 중심인 교회인데, 나에게 선교가 멀게만 느껴졌다.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으면서 출국을 앞두고 됐다. 와이미션 훈련을 받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번 발령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발령은 캐나다였다. 기대하는 마음만 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도착한 캐나다에서 마주한 삶은 추운 겨울 같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게 큰 고통이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도움의 손길과 위로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다. 지금 돌아해보면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신앙에서 독립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장을 했던 것 같다. 이번에 거주하게 될 곳은 브라질 상파울로다. 아웃리치처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4년의 거주 기간 동안 브라질에서 어떤 삶이 펼쳐지든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기꺼이 순종할 것이다. 와이미션을 수료하면서 흠여져 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전도와 선교라는 두 단어는 나와 전혀 상관없

다고 생각했다. 그런 나를 두 번의 해외 이동을 통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셨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영광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네 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를 배워서 현지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함으로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갈 것이다. 둘째, 브라질에서 만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다.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것이다. 셋째, 가정에서는 남편과 두 자녀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이다. 가정이라는 또 다른 사역지에서 믿음을 이어가도록 본을 보이고,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이다. 넷째, 한국 커뮤니티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할 것이다. 와이미션 과정을 수료하고 해외에서 새 출발 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나아가면서 결심한 것들을 이루도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할 것이다.

장로칼럼

스포츠 선교의 꿈

고길범 장로
(스포츠선교팀)

두 번째 탁구인 맞춤전도집회 ‘핑퐁 in Love’ (이하 핑퐁인러브)가 지난해 12월 14일(토)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에서 열렸다. 핑퐁인러브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을 가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성도 한 명이 믿지 않는 불신자 한 명을 초대하는 스포츠 맞춤전도집회다. 올해는 초청자와 전도대상자 60쌍 총 120명이 참가했다.

1부에서 탁구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탁구대 16대에 나뉘어 3시간 반 동안 진검승부를 했다. 함께 땀 흘리며 좋아하는 운동을 하다보니 분위기가 금방 살았다. 경기 이후에는 예쁜 탁자포로 탁구대를 덮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차려졌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즐겼다. 승부를 겨루던 8인 4팀이 어느새 동네 친구가 되었다. 찬양과 심어롱, 아름다운 트럼펫 공연 덕분에 참가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여성민 목사님의 결신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이 복음에 반응했다. 결신 29명, 세례 20명, 탁구선교회 가입 33명이라는 열매가 있었다. 전도대상자 6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복음에 반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스포츠가 가진 특별한 달란트 아닐까? 사실 우리는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했을 뿐이다. 그 현장에서 처음 보는 팀도 있었다. 알고 있던 몰랐던, 실력이 높은 낮은 모두 ‘탁구’라는 스포츠로 땀어린 족속이었다. 이미 탁구를 사랑하는 스포츠인 정신으로 한마음이 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스포츠에 예수님의 향기를 불어 넣었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기적이 됐다. 핑퐁인러브에 참가했던 모두가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을 보며 깜짝 놀랐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모두가 그 기적을 경험하도록 만든 요소도 있었다. 첫째, 공간이 참으로 훌륭했다. 마치 올림픽 경기장 같은 넓고 환하고 폭신한 바닥에 탁구대 16대가 놓여 있었다. 온누리청소년센터 지하 체육관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다. 둘째, 역시 사람이었다. 정성으로 경기와 축제를 준비한 온누리탁구선교회와 YTTM(양영자탁구선교회) 그리고 맞춤전도팀이 있었다. 밤낮으로 전도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경기 하나하나, 식사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쓴 손길 덕분에 예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는다.

마지막 요소는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전도대상자들의 상황과 마음을 만져주셨다. 이번 핑퐁인러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까지 받기로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난해 첫 핑퐁인러브 참가하셨던 전도대상자들이었다. 마형, 처남, 남편, 친구, 함께 운동하던 동료, 코치 등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초대한 초청자들과 전도대상자들의 관계에서 성령님이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다. 또 올해 핑퐁인러브는 실로 지분을 뚫고 중풍 병자를 인도했던 친구들의 정성과 노력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현상이었다.

제3, 제4의 핑퐁인러브를 계속해서 꿈꾼다. 탁구를 시작으로 풋살, 농구, 바이크, 캠핑, 야구 등 다양한 종목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전도대상자도 차세대,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기를 소망한다. 지역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가까운 일본과 해외 선교지로 뻗어 가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스포츠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분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나무’라는 윤동주의 시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리기 마련인데 나무가 흔들려야 바람이 분다는 짧은 네 줄의 시를 통해 행동하지 않는 20살 청년의 고뇌를 표현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3년이나 벌어졌다. 그 여파로 ‘디지털유목민’ 성도가 더 생겼고, 전도는 더욱 어려워졌다. 나는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도 마음놓고 할 텐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로등 아래에 연예인 콘서트 배너가 깃발처럼 달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순간 “너는 흔들 깃발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말씀하셨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후 2:14). 내게는 승리의 깃발이 있으니 그 깃발을 흔들면 된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딸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위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 절에 다니는 안사돈이 한 집에 두 종교를 가져 그렇다고 반대를 한다. 사위가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교회에 나가자고 해서 쉬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야.”

내가 “권사님도 두 종교 때문에 사위가 아픈가 하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시인했다. 나는 권사님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붙드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한1서> 4장 16~19절 말씀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 그 권사님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난다.

아파트 안 축구장 앞 그늘에서 두 남학생이 앉아 있었다. 나는 ‘굿 뉴스’를 5분만 소개해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해서 복음을 전했다. 두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듣고 영접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을 껴안지 못하게 해놓고 종교를 강요하세요?”라며 멀쩡히 떨어져 지켜본 한 아주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웃으며 “지금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거의 끝나고 있는 중이에요”라고 했더니 “관리실에 신고하겠다.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강요하면 되겠냐”고 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마무리했다.

아주머니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고 먼저 나를 소개했다.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나는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온누리교회는 좋은 교회로 평판이 나서 안다”고 했다. 자신은 성당에 다니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어른 말을 우습게 여겨 화가 난다고 오히려 하소연을 했다. 나는 “요즘 올바른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잘 못 키웠기 때문이라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올바른 기준이신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더 필요하지요”라며 미안해하는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굳어진 마음을 눈 녹듯 녹이셨다. 입을 열어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모든 문제를 삼키신 예수님을 선포하자. 나무가 춤을 춰야 바람이 분다.

신앙에세이

신주웅 전도사
(양재 차세대 영아부)

나는 2023년 11월부터 차세대 사역을 시작했다. 내가 차세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전까지 대학 청년부에서 열정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 차세대 사역을 시작할 때 설렘보다 두려움이 압도적으로 컸다. 차세대 사역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이해도 정말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운 인도하심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가장 피하고 싶은 곳, 가장 두려워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일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셨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셨다. 차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였다. 분명 나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인도하심이었다.

나는 2023년 11월 양재온누리교회 차세대 영아부에 부임했다. 영아부는 18~40개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다.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어린 성도들을 섬기는 부서다. 아이들이 워낙 어려서 설교에서 깊은 묵상과 섬세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성경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을 들려주고 보여줘야 한다. 영아부 아이들은 하나님을 직관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구와 설교형식을 활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 작은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볼

영아부 예배의 소중함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영아부에는 아이들 말고도 설교를 몰입해서 듣는 또 다른 예배자들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보다 중요한 예배자들이다. 부모님들이다. 영아부 예배에 출석하는 부모님들은 누구보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영아부 부모님들은 직장생활과 어린 자녀 양육을 병행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어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말씀 앞에 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다. 매주 일요일 자신의 영적 공급을 위해 성인예배에 참석할 법도 한데, 그마저도 어린 자녀를 위해 영아부 예배에 온다.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희생에는 육신의 희생만 있는 게 아니다. 영적 희생도 동반된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려면 부모의 총체적인 희생이 있어야 한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 자연스레 영적 사각지대

에 놓인 영아부 부모님들을 위한 ‘3분 설교’를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설교한 동일한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시대 믿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줘야 할 변하지 않는 말씀이 무엇인지 짧게 전한다.

그 순간 하나님이 부모님들의 지친 영혼을 돌보신다. 그 덕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몇몇 부모님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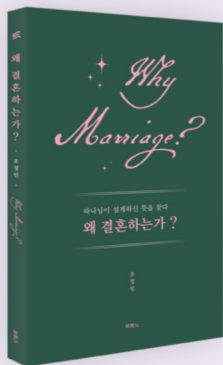
영아부 예배는 정말 소중하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말씀의 씨앗들이 아이들에게 심어지는 예배인 동시에 믿음의 부모님들을 세우기 때문이다. 영아부 예배를 통해서 혼란스런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거목 같은 거룩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두란노

2025
말씀으로 준비하는 새해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도서

조정민



왜 결혼하는가?

최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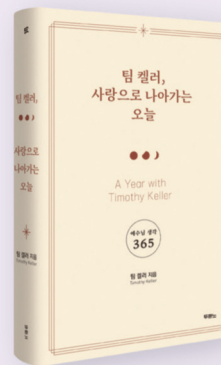
바울로부터

헬무트 틸리케



하나님의 침묵

팀 켈러

팀 켈러,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

김병삼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

큐티지 · 매거진

생명의삶 · 생명의삶 플러스
청·장년 목회자sena · 예조 · 예수님이좋아요 · 예수님이랑나랑
청소년 고학년 저학년 유아·유치

목회와신학 · 빛과소금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duplus

두플러스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
복음 콘텐츠를 보고, 듣고, 나누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올 설날에는, 고마운 분들에게
두플러스 구독권을 선물하세요!

종류(2종)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
스마트 플랜 1년 이용권

구매처

두란노문고
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